

바우처사업 '맞춤형 복지' 자리매김

도, 47억3700만원 들여 6392명 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이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주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가구별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발굴·기획하고, 정부가 이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 가족 415만 5000원) 이하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지원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도 바우처사업의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총 서비스 이용자가 63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시 지역(동) 이용자는 4741명(74%), 농촌지역(읍·면)은 1651명(26%)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총 51만1255명임을 감안할 때 바우처가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우처는 2월에 시작된 기존 9개 사업과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 3개 등 총 12개 사업이다. 내년 1월까지 47억 37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바우처를 신청해놓고 2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278명이며, 3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 가운데 아동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율이 10%에도 미치



지 못했다.

제주도는 2개월 이상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지해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이용이 저조한 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에 서비스 모니터와 링과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전반을 재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개발로 해마다 사업수와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내년 최저상계비 3.9% 인상
시설 탐방-제일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1318해피존전국캠프
삼다배 장애인사이클대회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습.

사회복지인 화합·협력의 무대

7일 학생문화원서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제주 사회복지인의 대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및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노래꾼 양

정원과 아라여린이집 원생들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이용)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마련된다. 아가의집과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등 10개팀이 나서 열띤 경연을 벌인다. 대상 1팀에게는 상금 15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1팀에게는 상금 70만원, 50만원이 주어진다. 한일시민문화교류협의회 '나는새(기네즈카 사무안)'

축하공연도 준비됐다.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품(식품, 생필품 등)을 갖고 와서 사랑을 쌓는 '푸드마켓 나눔의 탑 쌓기'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울터' 최고의 바리스타가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커피를 제공한다. 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심사를 통해 상품권을 주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인증샷' 공모'도 실시한다.

국내 최초 사회복지 인터넷신문인 '웰페어뉴스'에서는 홈페이지(www.welfare.net)를 통해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를 생중계한다.

★유공자 명단 2면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제주사랑! 투표로 보여주세요.

※문 자 : 001-1588-7715 로 제주 또는 jeju, JEJU 전송

※전 화 : 001-1588-7715 연결 후 한국어 안내에 따라 투표

※인터넷 : www.N7W.com (투표방법→제주도 홈페이지 참조) ※투표마감 : 2011. 11. 10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9만5550원

물가상승률 적용 올해보다 3.9% 인상

내년 도 최저 생계비가 월 149만5550원(4인 가구 기준)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고 2012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해(5.6%)에 비해 1.7%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5만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4만2197원, 3인 가구는 121만8873원, 5인 가구는 177만2227원으로 책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는 45만3049원, 2인 가구는 77만1408원, 3인 가구는 99만7932원, 4인 가구는 122만4457원, 5인 가구는 145만

982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 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이 결정됐다.

중생보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 방식이 전년 동월비 방식보다 합리적이라는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년(동기)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

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해 반영하고, 그 사이 연도에는 최소한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 되도록 보장됐다"고 밝혔다.

또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 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희망키움통장으로 자활의 꿈 키우세요”

제주시, 가입자 300명 목표

제주시는 다음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8월 16일 현재 270가구가 참여해 탈수급의 꿈을 키우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가구가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본인 저축금 외에 정부지원금과 공동모금회의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43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

득장려금 60만원과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때 약 3000만원(이자 4.7%)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가구는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가구,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대상자가 있는 가구, 자활장려금을 받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 사회복지시설 수급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행급여 특례를 실시, 2년간 의료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

도가 완화됐다. 8월 16일 현재 제주시 이행급여 특례자는 20명이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사례관리강화로 직업훈련 및 간병·양육 등의 사회서비스 연계 등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270가구 가운데 139가구는 주택구입과 임대자금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며, 81가구는 자녀의 교육비, 50가구는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표창 △현효성(아라초등학교) △이은하(효돈중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공로상 △윤보철(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봉사상 △정진욱(온누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제민일보 평기자회 △전혜숙 △홍금희(제주도농아복지관) △이재립(한라원작업활동시설) △양보원(평안전문요양원) △양정원(한국연예협회)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이현주(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김시중(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고영림(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이영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창수(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표창 △김여숙(손뜻모아봉사회) △조동호(아라종합사회복지관) △백신생(효사랑) △강순복(제주도농아복지관) △이종석(해주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회복지 유공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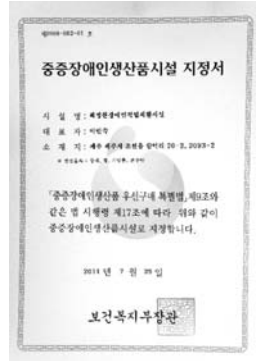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허희숙(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양청선(제주영송학교) △양종현(배사모복지장학회) △최영희(성이시돌요양원) △고한철(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윤앵아(평안전문요양원) △이창연(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고광일(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해정원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해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7월 2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사업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수막 및 각종 실사의 질 개선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수막 등을 제작해 얻은 수익은 장애인의 급여로 쓰이고 있다.

불교자비원, 창립기념행사·후원의 밤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대표이사 원종 스님)은 7월 22일 법인 제주KAL호텔 2층 연회장에서 '법인 창립 55주년 기념행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원종 스님은 "불교자비원은 앞으로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제주노인복지센터



는 7월 18일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혼자 사는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80가구를 방문, 10kg들이 쌀 80포를 전달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8월 1일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보금자리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빛누리(약칭 빛누리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기존 일시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한 전문적인 개입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프로그램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이면 3개월간 입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신변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문의=757-3400.



씨크릿 씬머스토리 연합캠프

해바라기거점지역아동센터는 7월 26일~27일 제주시 동부지역 5개 지역아동센터와 '비자림 씨크릿 씬머스토리' 여름 연합캠프를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다.

구좌농협 지원을 받은 이번 행사는 가정과 학교 또래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집단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참가 아동들은 지역내 교류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고, 소통의 기회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였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680,000	680,000
난치병환아후원	120,000	0
자원봉사후원	1,510,000	1,510,000
복지사업후원	1,760,000	641,000
푸드마켓후원	2,395,000	2,538,4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46) 제일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쑥쑥 자라나는 곳

‘지역사회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고 종합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식)가 추구하는 세상이다. 이는 비단 제일지역아동센터만의 꿈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향이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일지역아동센터를 8월 26일 찾았다.

제주시 일도2동 삼화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에 위치한 이 센터는 2005년 2월 설립됐다. 센터 정원은 49명이지만 현재 55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제일지역아동센터는 무엇보다 아동들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프로그램은 교육, 보호,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례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 영어, 컴퓨터·한자 교실을 비롯해 피아노, 기타, 플루트, 야구 등에 능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돼 있다.

영어며 컴퓨터교육 등은 다른 지역 아동센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별 반 다를 게 없지만 야구연습이 가

능한 것은 어엿한 자체 야구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지역아동센터가 야구단을 창단한 것은 지난해 6월. 전국 지역아동센터 최초의 야구단이다. 이름은 ‘제일 드래곤즈’.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야구 장비와 유니폼을 마련했다. 창단 이후 센터 아동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야구 연습에 몰두한다.

이 센터를 이용하는 중학교 1학년 허 모군은 올 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와 두산 경기의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다.

관악기인 플루트 매력에 흠뻑 빠진 아이들도 있다. 2년 전 EBS로부터 플루트 6개를 지원받은 것이 계기가 됐

다. 플루트를 곧잘 연주하는 중학교 2학년인 박 모양은 대학 진학 때 플루트 전공을 꿈꾸고 있다.

이렇듯 제일지역아동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박영식 센터장과 직원들의 남다른 열정, 헌신에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다.

제주과학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자바(JABA)’ 회원들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에스페란사’ 회원들은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아 아동들에게 수학, 과학, 영어를 가르쳐 준다. 삼화아파트 주민들은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모아 지원해 준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도 결혼 이주여성을 활용, 아동들의 영어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박영식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며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과 희망, 용기를 키워주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식 센터장 “도움주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감사”



친서민 사회복지시책 아이디어 ‘팡팡’

도행정시워크숍서 48건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3일 본청과 행정사에서 사회복지업무 맡고 있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어 친서민 복지시책 4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현정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복지시책은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활동보조기 지원 ▲주 5일 수업 시행에 대비한 취약계층 아동 토요 돌봄서비스 제공 ▲함께 사는 4대 가정 효행 장려금 지원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인력을 활용한 보육 돌봄서비스 등 44건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 4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생아 축하 기념품(행정시 지원, 3만원 상당)과 출산장려금 지원(보건소 지원, 둘째아 10만원~넷째 이상 100만원) 시책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라 ‘세대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조손가정수당을 ‘아동수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워크숍에서 발굴된 시책에 대해 복지정책T/F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단기 도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등을 위해 워크숍을 분기마다 개최해 도와 행정시 사회 복지 공무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서장복, ‘재국이의 희망행진’에 동참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근육병 친구들이 희망을 갖자, 용기를 내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제주 해안도로를 완주한 배재국군의 ‘제4차 희망의 국토행진’에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동참해 재국이에게 힘을 보탰다.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은 일부 구간을 함께 걸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재국이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귀포지역 거점별 장애인 지원협의회(대정, 안덕, 중문, 동홍, 남원, 성산)에서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心和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또 숙박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자 부모와 직업재



활시설 예코소랑에서는 동행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까지 선뜻 편한 잠자리를 내주었고, 서귀포고등학교 징검다리 봉사단 학생들은 이들 동안 희망깃발을 들고 재국이와 나란히 희망걸음에 동참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캠프 운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7월 28일~29일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CY-zone(사이존)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심리치료캠프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가 후원하는 2011년 사회단체보조

금 지원사업인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위기아동·청소년 안전보호팀 활동사업이다.

캠프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 HTP·KFD 그림검사, SCT 문장완성검사를 비롯해 미술·원예·운동·동작·놀이치료 프로그램 등이 실시됐다. 치료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등도 진행돼 참가



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이경익 회장은 “심리치료캠프에 직접 참여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며 “아이들과 함께 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즐거운 야생, 행복한 자립

더불어숲, 1318해피존 전국캠프 참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내 서곡오토캠핑장의 푸른 자연 속에서 텐트로 보금자리도 만들고 식사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청소년들이 즐겁고 힘찬 야생의 경험을 통해 행복한 자립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 8월 10일부터 2박3일간 열린 1318해피존 전국캠프 '야!자! 캠프'에 1318해피존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희영) 학생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1318세대의 자립'을 주제로 그동안 키워왔던 꿈과 끼를 나누며 해피존의 가족이 하나되는 만남의 장으로 600여명의 대식구가 참가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성 넘치는 센터생활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와 한여름 밤의 추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청

소년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해피존 영상제 및 열대영화제', 권역별 자유로운 모임활동인 '우리동네 모여라!', 캠핑장 곳곳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 미션을 수행하고 서명을 받아 빨리 도착하는 팀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오리엔티어링 '찾아라~ 우리 쌤!'이 운영됐다.

또 물총놀이 등 더위를 잊게 하는 '놀이마당', 해피존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동아리 축제공연 한마당!', 전하고 싶은 사연과 음악을 신청하면 해피존 졸업생들이 들려주는 '보이는 라디오 야자! 타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진흙 위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



는다"고 입을 모았다.

전둥, 번개가 치는 밤을 학생들끼리 한 텐트에서 함께 지내며 추억을 만든 1318해피존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동아리 공연 한마당에서도 '별'이라는 그룹으로 음악에 맞춰 멋진 댄스를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다혜(제주서중 1년)양은 "진흙투성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실망했지만, 직접 텐트를 치고,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자며 다른 지역

친구들을 만나니까 흥미진진했다"고 말했다.

1318해피존은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로 2006년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SK, 부스러기 사랑나눔회의 사업협약으로 출발해 정부, 기업, NGO가 힘을 모아 1318세대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8월 현재 전국 34개,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조순옥 명예기자〉



어르신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휴완 스님)은 7월 29일 복지관 강당에서 상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무리 행사로 법인 관계자와 관계공무원, 복지관 회원 어르신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음악회 및 실버스타킹(노래경연대회)을 진행했다.

휴완 관장은 "요즘 어르신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 욕구가 다양해지는 것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관심분야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노인복지관은 이달부터 서각교실과 서양화강좌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예술적, 심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노인복지관은 취미, 건강, 학습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23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8월 18일 중간관리자 중급(7년 이상)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단계별 새내기(3년 미만), 중간관리자 초급(7년 이하), CEO(기관장, 시설장)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가치관을 정기적으로 습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매년 8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일정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jeu.welfare.net) 참조.

문의=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726-2154,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소/식/마/당

홍익거점아동센터 연합캠프 진행



홍익지역아동센터는 8월 10일부터 이틀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협력기관(꿈나무·행복나눔·함덕·화북·용담 지역아동센터)과 함께 '남 그늘에 혼디 모영 놀게미 쌤'을 주제로 아동연합캠프를 실시했다. 자기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아이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공동체생활을 통한 소통, 협동, 배려 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가정위탁센터 멘토·멘티 만남의 날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8월 13일 서귀포시 남원·포선지역에서 학습멘토링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학습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남원·포선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과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이마트 신제주점, 주거환경개선봉사



(주)이마트 신제주점(점장 이원희)은 8월 9일 성안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마트 신제주점 직원들은 평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과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시락과 생필품 등도 후원하고 있다.

아라복지관 '어르신여가서비스' 운영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4월부터 도내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7개 기관 82명에게 원예활동, 냅킨공예, 비누공예, 종이접기 등 매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환경센터(관장 안원식)는 8월 13일 제주시 한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바다체험장에서 물고기잡기 체험을 했으며, 선녀와 나무꾼과 캐리비드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늘이의 여름캠프 개최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8월 11일 시설이용자, 제주중학교 부모회 및 학생,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덕서우봉해변에서 2011년도 해늘이의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바다를 경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함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청소년들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의 산 교육장이 됐다.

2011 삼다배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열려

84세 김희호 할아버지 참가 '눈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사이클연맹(회장 양예홍)이 주최한 '2011 삼다배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가 8월 26일 제주시 김녕~구좌 해안도로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장애인사이클 선수와 임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의 기량을 서로 경쟁하고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

경기는 IDD 엘리트부 남자 개인도로 22km, 여자 개인도로 10km를 비롯해 IDD 생활체육부 남·여 통합 개인도로 10km, 핸드사이클 남·여 등급 통합 개인도로 10km, 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 남자 및 여자 개인도로 22km 등 총 12종목으로 치러졌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김희호(84) 할아버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시각장애 1급인 김희호 할아버지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사이클에 대한 열정으로 뽀뽀 뽀뽀 텐덤사이클 남자 개인도로 10km에 참가했다.

세차게 부는 바닷바람에도 끄떡없이 곳곳하게 사이클의 페달을 밟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참가선수들 비롯해 모두가 감탄했다.

이날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 김희호 할아버지는 "텐덤사이클을 타면서 마음에 쌓인 인생의 노폐물을 깨끗이 날려 버릴 수 있어 건강을 유지



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계속 도전하겠다"는 굳센 포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사이클연맹에서는 시각장애인 1부 여자(22km) 경기에서 김지연, 강진이 선수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시각장애인 2부 여자(22km)경기에서는 오순연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시각장애인 3부 남자(10km) 경기에서는 장두하씨가 3위를, IDD 남자(10km)에서는 김장현 선수가 3위에 이름을 올려 제주도 사이클의 위상을 높였다.

김희호 할아버지는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할아버지가 진정한 챔피언으로 남았을 것이다.

〈양정선 명예기자〉

나누는 기쁨, 어울리는 즐거움

월드비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캠프

월드비전 제주지부 제주 가정개발센터(지부장 김관호)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믿음의 집과 플루트동아리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2007년과 2008년부터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플루트동아리와 축구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

플루트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아동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



다"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호 지부장은 "저소득 아동들이 이웃들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아동들의 의식 속에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봉사활동 캠프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수혜자가 아닌 후원자의 입장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일배움터, 도예작업기 등 보강

일배움터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도예 가스가마와 농산물 건조기를 설치했다.

일배움터는 도자기공방의 가스가마 보강으로 도자기화분과 생활자기의 생산량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사업단의 건조기계 보강으로 건조농산물에 대한 제품 신뢰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8월 식품 기탁자



▲(주) 금강축산유통=육류 210kg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80봉 ▲김치원=김치 6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900개 ▲제주이어도지역지원센터=유기농채소 120kg ▲아산재단=쌀 200kg ▲이명구=쌀 400kg ▲CMS후원자=205명 175만원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나도 영화감독' 운영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나도 영화감독'을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주 1회 운영했다.

지역아동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나도 영화감독'은 영화를 감상하고, 그리기,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내용을 재구성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소 단순히 영화를 보고 끝내는 것에 익숙했던 아동들은 영화를 보고,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에 조금 어려워하면서도, 색다른 체험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채연(12) 어린이는 "평소 영화를 그냥 보기만 했는데, 영화를 보고 직접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봉사학교 운영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연)는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1기와 2기로 나눠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시설 7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



들기 체험을 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제주나누리라이온스, 비양도 주민 무료진료



제주나누리라이온스클럽(회장 양광호)은 8월 27일 제주춘강의원(원장 최종철)과 함께 한림읍 비양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 및 어르신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

사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무료진료를 했다.

"뜻깊은 방학·휴가 보냈어요"

행동하는 양심, 섬마을 일손돕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자원봉사단체 '행동하는 양심'과 섬마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행동하는 양심'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태풍 '부이파' 피해를 입은 제주시 구좌읍 일대 농가 복구지원 및 해안가 정화활동,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된 20여명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방학과 휴가기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자 각자 자비를 들여 참가했다.

김경희 관장은 "세계 7대 자



연경관에 도전하고 있는 제주도의 가치를 외부에 알리고, 지역 곳곳에 나눔과 배려가 정착돼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제주복지관은 '행동하는 양심'과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주기적으로 '섬마을 일손돕기' 봉사활동과 해외 자원봉사자과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애덕의집 '야호, 바다야 놀자'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은 7월 26일 (주)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소장 문성일),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단(사장 전명기)의 SK천사단 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서귀포시 하예동에 위치한 '논짓물'에서 바다체험 '야호, 바다야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바다체험에는 제주애덕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 50명



전원이 참여해 물놀이를 즐겼다.

SK천사단은 정기적으로 제주애덕의집을 방문해 시설보수, 외출동행, 차량지원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

지금 제주사회에 절실한 것은



김 범 훈

前 제주일본노선실장

고수(高手)와 하수(下手)의 차이는 무엇까. 고수란 수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하수는 그 수가 아래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고수의 하수의 차이는 확연하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특별한 데 있지 않다.

고수는 틈만 나면 기본을 익히고 또 익힌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수는 기본 읽히기를 거듭하지 않는다. 가장 쉽다며 기본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효와 우정, 그리고 대화와 이해

이는 비단 바둑과 무술 등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무릇 기본이란 사물이나 온갖 현

상의 기초와 근본을 뜻한다.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가리는 덕목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생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우선 꼽으려면 단연코 기본이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는 기본이다. 그러나 경쟁사회의 격랑이 크게 일어서일까, 서로 간의 불신이 예삿일 아니다. 일부의 경우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갈수록 효의 빛이 바랜다. 하지만 가정은 인간사의 근간이다. 가정이 살아야 학교와 사회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친구들 간의 우정과 신뢰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어느 날은 친구하자며 쉽게들 사귀더니, 어느 날은 언제 왔느냐는 듯이 남남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친구마저 이재(理財)에 얽혀버리면 서로 돌아서기 일쑤다. 친구의 부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정에도 염량세태(炎凉世態)가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개탄할 일이다.

자고이래로 인생사는 부모와 자식, 친구와 함께 성장해 왔다.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며, 향기 나는 우정은 신뢰사회의 디딤돌이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

물이다. 문제는 망각이 너무 자기 편의적이라는 점이다. 진정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에게 아픔을 준 기억은 잊어버리기 예사다. 상대방은 미움과 원망에 사무치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 모두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이 남에게 베푼 일만은 잘도 기억해 낸다. 망각과 기억 사이, 적선(積善)과 적덕(積德)이란 착한 삶의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효와 우정에도 금이 간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풍요와 충만의 희망 보다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는 제주사회다.

이런 때 일수록 가장 절실한 것은 서로가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 시작은 하고 싶은 말부터 가려서 할 일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은 끝까지 경청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대화요 이해다. 효와 우정의 기본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살가운 향기가 나는 부모와 자식이 되고, 친구가 될 터이다.

시론

문제는 정의다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지난 6·2 지방선거의 핵심의제 중 하나가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이라 하겠다. 무상급식 화두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편차로 내 부적 갈등이 있었으나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났고, 이를 계기로 복지는 물론 보건, 의료, 교육 등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진보와 보수정당 간 정책과 전략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이 중 백미는 진보진영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스웨덴사회를 기본모델로 신자유주의를 배척하고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도 이전의 잔여적 복지모델과는 다른 공정과, 가진 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성장뿐만 아닌 복지의 결합에 방점을 찍는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을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다. 우리사회에서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할 만 일이다.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사익 카르텔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기업 등에 권력을 나눠 가지는 카르텔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아메바처럼 변신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오도시키고 조작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종 편법과 유착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투자에 비해 과도한 권리와 이익을 누려 왔으며 국가와 법위에 군림하는 세력이다. 이런 카르텔에 속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은 험난한 무한경쟁,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과도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한국사회는 이들에 의해 시장, 경쟁, 개인 자율책임 등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병폐들은 근래 들어 갑자기 생겨난 부조리가 아니다. 복지노쟁을 얘기할 때 항상 공격대상이 되는 ‘신자유주의’ 사조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는 봉건주의와 일제식민지시대,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카르텔을 형성하게 한 역사상에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카르텔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권력과 부의 축적과정에서 토호세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정보화, 자유화로 인해 생긴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폭력이 사회구성원간 격차를 주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힘센 자의 시장’이라는 폭력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따지고 보면 복지결핍도 그 뿌리는 힘센 이익집단에 휘둘려 제대로 건강한 시장이 작동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말하는 진보와 ‘공정사회’를 말하는 보수, 모두 이런 한국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에 메스를 대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는 요원하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청문하려 해도 끝까지 버티며 별 탈 없는 그룹총수와 공생할 수 있는가, 법을 위반해도 관계없는 법집행자와 공생한다면 하겠는가, 나라가 해 주는 복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통치는 봉건적 국무총리와 서민들 간 공생이 되겠는가. 그들이 쉽게 맺는 말과 행동이 무섭기도 하다.

국민(국가)과 법보다 우위에 군림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리고 카르텔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신뢰를 보낸다. 권력을 향한 진보와 보수 누구든지 간에, 원래 복지란 ‘분배’인데 ‘정의’ 없이 가능하겠는가.

기고

아름다운유산바이러스-자원봉사



박 상 희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요즘 주위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보니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

4년 동안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청소년지도사로 앞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의 소심한 우려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위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도 해보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일터가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힘이 날 때

도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이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정착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온 결실이라고 해야 할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도 자원봉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나의 걱정과는 달리 그 분들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모두 동참해 주셔서 지금은 안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무료 자원봉사자 분들이다. 고평우신 분들이다.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 하고 있다.

안덕청소년문화의집에도 ‘흔디드림’이라는 자원봉사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첫 봉사활동은 화순 꽃지월에 다녀왔는데, 3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환경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가는 길이 힘들어 걱정을 했는데 다녀와서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문 내용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우리와 조금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 청소년 문화존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 청소년들과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러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보는 것이 소박한(?)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참여도 높고, 부모님들의 호응도 좋을뿐더러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인지도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느낀다.

또한 청소년들도 그렇게 배워서 다시 먼 훗날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아름다운 유산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전달하는 전도사를 기꺼이 자청한다.

“자유를 넘어 행복으로”

8월 21일~26일 제20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열려 20여개국서 1600여명 참석...춘강 '별의 뗏목상' 수상



△우근민 제주지사가 8월 21일 열린 환영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제20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가 '자유를 넘어 행복으로'를 주제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아시아지적장애인연맹(회장 김원경) 주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16개 회원국가의 관련 전문가, 지적장애인 및 가족, 관련 종사자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의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회원국 확대를 도모했다.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1일 지적장애인 및 복지사업가 등 내외국인 5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지사 주재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등 9개국 대표자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8월 22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제주도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인 '춘강'이 아시아지적장애인 연구기관인 아시아리소스센터로부터 '별의 뗏목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각국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토론회도 진행됐다.

저녁 사교행사로 리셉션파티와

장애부모 교류의 밤, 문화의 밤, 외국 참가자들의 특별공연인 우정의 밤 등이 열렸다. 지적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차별'과 '취업'을 주제로 지적장애인 토론회가 열렸으며, 제주전통놀이 체험, 와카다케 뮤지컬 관람 등도 진행됐다.

8월 24일에는 한국의 특수교육과 복지현황을 아시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기관견학의 날'이 마련돼 제주영송학교, 제주영지학교, 서귀포문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 한라원, 창암재활원 등을 7개 조로 나누어 견학하고, 세계 최대 돌미로공원인 메이즈랜드를 돌아봤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제주영송학교 지적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와 음료를 제공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물 홍보와 전시판매, 한국관광공사의 한복이벤트, 지적장애인 스포츠 홍보와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홍보 등이 이뤄졌다.

특히 1973년 제1회 필리핀대회 등 과거 주요대회의 사료를 모아 40년사 특별전시관도 운영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은 1969년 아시아지적장애인연맹에 가입해 199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평등과 조화'란 주제로 제11차 대회를 개최한 뒤 18년 만에 두번째 대회를 유치했다.



△개회식 참석자들이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40년사 특별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도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인 '춘강'의 이동한 이사장이 '별의 뗏목 상'을 받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이 제주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
사회복지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랑·나눔 함께하는 세상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1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

일시 : 2011. 9. 7(수) 11:00 ~ 16:00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부대행사

- 푸드마켓 '나눔의 탑' 쌓기
-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품(식품, 생필품 등)을 갖고 오셔서 함께 쌓아주세요.
-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인증샷' 공모
-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제출기간 : 2011. 9. 7 ~ 2011. 9. 16
- 보내실 곳 : jejubokji@empas.com
- 일배움터 이동카페 '맛있는 커피, 그리고 희망'
-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세상에 단 한 잔뿐인 커피를 드립니다.
- 즉석사진 찍어주기
- 포즈만 취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찰칵!

참여단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성상담소인권시설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제주지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회 (가나다 순)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www.jejubokji.net